

# 野 '혁신 화약고' 정체성·공천제 논의 착수

# 野 혁신위, 주승용 최고위 복귀 요청

### 1차 혁신안 통과 기세 이어 9월 중앙위도 돌파 각오

### 비주류 "혁신위 활동 본질서 벗어나"…文 사퇴론 재점화

새정치민주연합이 1차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의결로 첫 고비를 넘겼지만 혁신위원회가 '정체성 재정립', '공천개혁' 등 초민감 사안 논의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혁신위는 혁신안 통과와 기세를 몰아 9월 중앙위까지 단숨에 돌파하겠다는 각오지만, 비주류는 '본 게임'은 이제부터라면서 버리는 모습이다.

혁신위는 최근 '정체성 소위원회'와 '공천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21일 정체성 재정립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혁신위 핵심 관계자는 "결국 정체성이란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기조를 내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중도와 진보의

가치를 모두 담아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위는 최고위체 폐지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안, 교체 지수 등의 공천 관련 혁신안을 가다듬어 9월 중앙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표도 당직 개편에 착수, 전날 혁신안 통과로 끌어낸 추진력을 최대한 살려 당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직 개편이 또 다시 당내 논란을 부른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주류는 혁신위 활동이 본질을 벗어났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서 "사무총장직 폐지가 핵심은 아니다"라며 "혁신위가 지나치게 당 내부 문제에만 몰입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저는 혁신안에 기권했다"며 "대표의 권한을 내려놓자는 판국에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비주류 일각에선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 등을 들어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무총장 폐지는 지엽적 문제다. 재보선 패배가 사무총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문 대표가 사퇴하고 진노패권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충돌은 혁신위의 정체성 논의가 본격화하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비주류에서는 혁신위가 당을 '좌 클락'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주류 측에서는 혁신위가 진보 색채를 강화하려 할 경우, 당내 강력한 반발과 함께 탈당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도를 확보하지 못한 좌클락이 결국 총선과 대선 패배를 부를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혁신위가 조만간 착수할 공천 개혁안 역시 협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과 교체 지수 선정 등을 놓고서는 인적 구성과 계량화 문제점을 놓고 당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어제 중앙위 혁신안 의결이 주류와 비주류의 '전초전'이었다면 정체성 재정립은 '전면전', 공천 혁신안은 '총력전'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며 "혁신안이 성공하려면 주류 진영에서 정치적 희생을 통해 진정성을 보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친노 패권 달라진 것 없다"

### 주 의원, 조만간 입장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주장하며 지난 5월 수석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퇴 이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크게 없지 않느냐"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1일 혁신위는 성명을 통해 "당의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으면 혁신은 그만큼 더더욱 어렵다"며 "최고위원회의는 조속히 정상화해야 하며 이에 혁신위는 주 최고위원의 복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는 당 내외의 신당 및 분당 논의와 관련, "당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이

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행위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며 "분열을 조장하는 반혁신이 아니라 혁신의 길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누구도 지난 재보선 패배에 책임지지 않은데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방안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며 "복귀는 생각하지 않은 문제라는 점에서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 의원의 입장은 최고위원 복귀 명분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당의 혁신을 위해 최고위원에 복귀해 달라는 혁신위의 요청을 계속 외면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조만간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함께 주 의원을 만나 최고위원직 복귀를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국정원 해킹 등 일정 논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등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의 진상규명 방식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도 논의했다. /연합뉴스

## 강운태 전 광주시장 정치재개 나서나

### '정치적 고향' 남구서 강연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21일 '정치적 고향'인 광주 남구에서 강연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정치 재개를 위한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남구문예회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남구문예회관이 2015년 기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명사 초청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첫 행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 바 있다. 강 전 시장은 올해 두번째 강연자로 행사를 진행했다. 강 전 시장은 2시간 동안 500여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주제 없이 자신의 인생과 경험 등을 들려주었다. 강연에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강 전 시장이 남구에서 공식 행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전 시장은 남구에서 2000년 16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때문에 강 전 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 전 시장이 출마하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장병원 의원과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장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인 윤정현 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새정치, 신설 조직본부장에 이윤석 의원

### 문재인 대표 당직 인선 오늘 발표...정책위의장 최재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본부장에 전남 출신 재선인 이윤석(무안 신안)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일 혁신안 확정에 따른 당직 인선을 마무리지었으며,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2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본부장은 직제 개편에 따라 '핵심 보직'으로 부상한 자리로, 현재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총무본부장에는 혁신안 통과로 사무총장직에서 조기

사퇴하게 된 3선의 최재성 의원이 내정됐으며, 민생본부장에는 재선의 정성호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김한길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전략홍보본부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에는 안규백, 홍중학 의원이 각각 유임됐다.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파동 외중에 불거진 뒤 그동안 표류해온 정책위의장 문제는 강기정 의원 대신 김한길 전 대표 및 이종걸 원내대표와 가까운 비노측 재선인 해남 출신 최재천(서울 성동 갑) 의원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윤석 의원



최재천 의원

당 관계자는 "당평인사가 핵심 키워드"라며 "이번 당직인선을 통해 내부 단합과 결속을 도모, 원심력을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30개 자료 요청

###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국가정보원은 진실규명 노력을 정치공세로 돌아세우는 공작을 멈추고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은 근거없는 의혹으로 매도하고 자해행위로 규정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해킹프로그램인 'RCS'의 구매·운용과 규정, 사망 직위 등과 관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각각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김무성 대표 25일 방미...반기문 총장 만날 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번 주말인 오는 25일 미국을 방문한다.

김 대표는 다음 달 1일까지 9일간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 정·관계와 학자, 교민 등 조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정당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메르스 사태, 국회법 파동 등이 끝나지 않았다면 성사되지 못할 뻔했던 일정이지만 김 대표 본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큰 고비를 넘기고 다소 흥분한 마음으로 떠나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직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대권 후보로 계속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뉴욕에서 만날 예정이다. 또 존 케리 국무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광주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 www.geumsoojang.com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년재직) |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b>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b>세무사, 연구원</b>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b>교사, 교수</b>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텝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b>여</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		<b>임페리얼 클럽</b>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남동로 68 <b>(02) 521-4405</b> 호남지사 (63) <b>275-7766</b>